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, 6.30(금) -

-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임
 - 정부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민간위원님들 여러분, 특히 제가 평소에 흠모해온 고명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가움. 앞으로도 ODA 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람
- 많은 국민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만,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로 오랫동안 있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고,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델로서 칭송받고 있음
- 그러나 우리가 그 위상에 걸맞은 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, 우리의 발전이 놀랍다는 분도 계심
- 특히 작년에 일부 사업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국민들이 ODA 사업에 대해 실망을 일부 갖게 된 것도 사실임
 - 오늘 새 정부 첫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터 새 정부의 ODA 청사진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- 새 정부의 ODA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
- 첫째, “확고한 원칙”하에 성과를 내는 ODA가 되도록 하겠음. 이른바 효과적 ODA임
 - 도움을 받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원,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ODA를 추진하겠음

- 이른바 수요자 지향적인 지원을 해야 개발도상국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음

□ 둘째, “투명한 ODA” 가 되도록 하겠음

-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,
 - 이를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고,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시켜 나가야 함
- 이를 통해 일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,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

□ 셋째, “함께하는 ODA”임

- ODA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고, 시민사회나 민간기업들도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고 계심
- 특히,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시민사회를 ODA의 중요한 “동반자”로 인식하고 소통과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함

□ ODA 사업은 40개가 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일관된 목표에 따른 통합적 추진이 매우 중요함

- 우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
- 각 부처는 자기부처를 뛰어 넘어서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ODA의 3가지 추진 방향을 충실히 존중해 주시면서, 다른 기관,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주기 바람